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2010 남아공월드컵 대한민국-우루과이의 16강전이 열린 27일 새벽 광주시 서구 월드컵 경기장을 찾은 붉은악마들이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끝내 열지 못한 8강문 ... 그래도 잘싸웠다

대한민국 16강전 우루과이에 1대 2 아쉬운 패배

가나, 미국 꺾고 8강행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7일(한국시간)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에서 남미의 전통 강호 우루과이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전에서 이청용이 동점골을 사냥했지만 루이스 수아레스에게 두 골을 내줘 1-2로 아깝게 패했다.

허정무 감독은 4-4-2 대신 4-2-3-1 전형을 8강 진출을 위한 필승 카드로 내놨다. 박주영을 원톱에 세우고 김재성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내세웠다.

또 좌우 날개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듀오' 박지성과 이청용을 폈다. 논란이 많았던 오른쪽 풀백으로 발이 빠른 오범석을 대신해 몸싸움이 좋은 차두리를 기용했다. 골대는 정성룡이 지켰다.

우루과이는 수아레스-에딘손 카바니 투톱에다 디에고 포틀란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스타일로 맞붙을 뵈었다.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던 한국은 전반 5분 '골대 불운'에 가슴을 치야 했다. 박지성이 돌파하다가 막시 페레이라의 파울로 아크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박주영이 오른발로 힘껏 감아 찼다. 예리하게 흰 공은 그러나 왼쪽 골대를 맞고 튀어나왔다.

하지만 한국은 전반 9분 골키퍼 정성룡의 실책성 플레이로 우루과이에 선제골을 헌납했다. 왼쪽 측면 깊숙이 침투한 포틀란은 카바니가 대각선 후방에서 길게 공을 올려주자 바로 반대쪽으로 땅볼 크로스를 건넸다. 골키퍼 정성룡이 주춤하는 사이 오른쪽으로 빠르게 침투해온 수아레스가 오른발로 침착하게 골 포서리로 차넣었다.

0-1로 뒤진 태극전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공격의 고삐를 죄었지만 우루과이 수비진의 방패는 견고했다.

후반 15분 허정무 감독은 김재성을 빼고 이동국을 투입해 공세를 강화했다. 이동국과 박주영이 투톱을 맡는 4-4-2 전형으로 바뀌었다.

결국 기회가 왔다. 주인공은 '블루 드래곤' 이청용이었다. 후반 23분 왼쪽 프리킥 찬스에서 기성용이 정교한 크로스를 올려줬다. 공은 상대 수비수 머리를 맞고 왼쪽으로 굴절됐고 이청용이 골지역으로 달려들며 헤딩 슈트를 꽂아 넣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의 첫 실점이었다.

태극전사들의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후반 35분 우루과이는 오른쪽 코너킥 찬스에서 선제골의 주인공인 수아레스가 또 한번 한국의 골문을 꿰뚫었다.

후반 41분 이동국이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는 등 한국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끝내 우루과이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한편 가나는 27일 투스텐버그 로열 바포켄 경기장에서 열린 16강전에서 전,후반 90분 경기를 1-1로 비긴 뒤 연장 전반에 터진 아사모아 기안(레)의 결승골로 미국을 2-1로 꺾고 8강에 진출했다.

가나는 우루과이와 7월3일 4강 진출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캡틴 박지성

“나의 월드컵은 끝났다”

K-리그 유턴... 제 16구단 광주FC에 둥지?

■ 유쾌한 도전 끝낸 허정무 감독 거취는

대표팀 재계약 질문에 “지휘봉 잡을 사람 따로...”



한국의 사상 첫 16강행을 이끈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의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루과이전 직후 허정무 감독은 “월드컵에만 전념해왔기 때문에 거취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야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한국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허정무 감독과 재계약 또는 새로운 인물 영입 등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은 허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월 남아공 전지훈련 때 허감독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 협회가 재계약을 요청한다면 지휘봉을 계속 잡을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말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여유를 남겼다.

허 감독이 대표팀과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K-리그로 복귀가 유력하다.

현재 새로운 사령탑을 기다리고 있는 팀

은 인천 유나이티드,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신생팀 광주시민프로축구단(가칭 광주 FC) 세 팀이 있다.

허 감독이 K-리그에 복귀한다면 포항이 새 둥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포항 코치로 활동했던 허 감독은 1992년 이회택 감독이 물러난 뒤 1995년까지 3년간 포항을 맡은 경험이 있다.

광주에 둥지를 트는 것도 점쳐볼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광주프로축구단 창단준비위원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감독·선수를 영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광주시의 예산지원과 시민주 공모, 기업 후원금으로 몸값이 폭등한 허 감독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소년 선수 육성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허 감독은 10여년이 넘게 자신의 이름을 건 축구교실을 지난해 목포축구센터로 옮기면서 월드컵 후 축구센터장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표팀 은퇴 시사... “세계 강호와 격차 줄였다는데 만족”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대표팀 ‘캡틴’을 맡아 23명 태극전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산소탱크’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경기 종료 후 열리는 휘슬 소리와 함께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을 끝냈다.

박지성은 27일 새벽 포트엘리자베스 넬슨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끝난 우루과이와 대한 16강전을 끝내고 “꽤한 경기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졌다는 사실이 가장 아쉽다”며 “충분히 이길 수 있었고 선수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박지성은 이날 4-2-3-1 전술의 왼쪽 날개

로 선발출전해 90분 동안 10.852km를 뛰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우루과이 수비수들의 밀착방어에 막혀 단 1개의 헤딩슛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지성은 “우리의 경기력을 보면서 세계 강호와 격차가 줄었다는 데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월드컵 대표팀의 해체를 앞두고 주장 완장을 놓게 된 소감에 대해선 “아직 대표팀 자체를 은퇴한 것은 아닌 만큼 나의 뒤를 이어 누군가 주장을 맡게 될 것”이라며 “출가 분한 기분은 없다. 그냥 나의 월드컵이 끝났다는 생각이 아쉽기도 하고 후회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 “대표팀 은퇴 시기를 생각하면 2011년 아시안컵 무대가 될 것 같다. 꼭 우승해보고 싶다”고 말했던 박지성은 “다음 월드컵은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팀에서 내 기량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대표팀은 올스타팀이 아니다. 실력을 보여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비뿐만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서 좋은 선수가 나와야 한다”며 “수비수들의 해외 경험이 적은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